

칠레 6월 경제 동향 (달러-칠레페소 환율 관련)

작성자주 칠레 대사관 작성일2022-07-07

최근 칠레 재정부의 50억 달러 규모의 외환 매도 착수에도 불구하고 달러-페소 환율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칠레 페소화는 2022.6월의 경우 세계 통화 중 라오스 킵화 다음으로 통화가치 최대 하락률(10.26%)을 기록한바, 페소화 가치 하락 요인에 대한 주요 보도 내용 아래 알려 드립니다.

- **(구리 가격 하락)** 칠레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구리 가격은 2022.6월 파운드당 US\$3.739로 13.22% 하락을 기록하면서, 2022년 상반기 구리 가격 하락률은 14.93%로 2015년 이후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함.

- 일반적인 구리-달러 관계는 구리 가격이 낮을수록 칠레 경제에 유입되는 달러가 줄어 들고, 따라서 칠레 경제에 달러가 적을수록 달러 대비 페소화 가치 절하

- **(미국 연준과 금리간 차이)** 2022.6월 페소-달러 환율 인상은 주로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들의 달러 캐리 트레이드(에 투자하는 포지션) 청산에 대한 시장 반응으로 볼 수 있음.

- **(중앙은행과 투기)** 칠레 중앙은행은 페소의 움직임을 특이한 이상 현상이 아닌 경제 펀더멘털과 연결하여 외환개입 가능성을 배재해 온바, 일부 전문가들은 페소화 가치 하락폭이 현재 칠레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칠레 중앙은행이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이용 가능한 도구라는 메시지로 구두개입성 발언을 했어야 했는데 외환딜러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어 외환시장의 투기를 조장한 면이 있다고 함.

- **(대내 요인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일부 전문가들은 많은 이들이 게임의 규칙 변경 위험 때문에 말 그대로 칠레를 떠나고 있다면서 신헌법안 국민투표를 앞두고 페소화에 불확실성이 반영되었다는 의견임.

-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자금 이탈은 금번 환율 상승 이전에 많이 발생했을 것이므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서, 달러 매입 요인이 칠레 신정부 추진의 개혁이라면 개연성이 있으나 신헌법안 관련 소식은 페소화 가치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고 반박

- **(기술적 문제)** 달러 강세의 또다른 이유로 지난 6.17(금) 달러 대비 페소화 환율이 사상 최고치(CLP875)를 경신한 후 환율의 곡선을 점칠 수 있는 통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음.

※ 지난 6.23.(목) 달러당 CLP900 돌파, 7.7.(목) 현재 CLP970 기록

- 최근의 환율 움직임(페소화 가치의 지속 하락)은 환율의 심리적 지지선(CLP900) 및 2년 이상 버텼던 트리플탑 형성(후 하락세로의 추가 이동)과 같은 매우 중요한 수준의 기술적 붕괴에 대한 반응
-